

#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사상자 급증

젤렌스키 “3000명 넘어”...미군 당국자 “수백 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3000명 이상을 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에비 데이터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수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적었다.

그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쿠르스크 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맹국들에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보면, 안정을 되찾는 데 드는 비용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언

제나 훨씬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북한군 사상자 추정치는 앞서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수치보다 훨씬 많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여러 출처의 정보·첩보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군 당국자는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해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그린란드 눈독’ 들이지 마?

덴마크, 2조원대 방위비 증액 “우연의 일치” 연관성 부인... ‘유럽 자강론’ 유도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덴마크가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을 대폭 증액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트로엘스 폰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 확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은 채 “백억 크로네 단위”라고만 언급했다.

BBC는 현지 매체들이 패키지의 규모로 120억~150억 크로네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며 최소 15억 달러(약 2조18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늘어난 방위비는 감시선 두 척과 장거리 드론 두 대, 개 썰매 부대 두 곳 증설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 소재 북극사령부의 병력을 확충하고 민간 공항 세 곳 가운데 한 곳을 F-

35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증액된 지출 범위에 포함된다.

포울센 장관은 “지난 몇 년간 북극 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둔군의 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국방 및 외교 정책 등을 덴마크에 맡기고 있는 자치령이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첫 번째 임기 때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던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언급을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눈독’에 놀란 덴마크가 부랴부랴 방위비 증액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정책의 발표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포울센 장관은 발표의 시기에 대해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이 덴마크 정부의 ‘자강 노력’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덴마크 사관학교의 육군 소령 스텐 키에르그르는 BBC에 그린란드의 덴마크 예산 의존도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영리하다. 그는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복지제도를 떠안지 않은 채 목소리만 내는 것으로 덴마크가 북극해의 군사력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북한이 러에 파병 제안”

NYT, 미 당국자 인용 보도...우크라 당국자 “북한군 200명 사망”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것을 신속히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 일이라는 것이 서방의 주된 평가였는데, 러시아가 먼저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라는 게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앞서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군사령관도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州)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먼저 러시아에 파병을 제안했고,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를 곧바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향후 위기 국면에서 발생할 외교적 싸움

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해주고, 기술 제공도 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NYT는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의 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200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그보다 조금 더 많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밝힌 것으로 전했다.

현재 북한군 부대들은 러시아 전투부대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채, 자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양상이며, 그것이 인명 피해 위험을 더 높였다고 NYT는 분석했다.

다만 북한군 병사들은 부상시 소규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쿠르스크의 대형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등 러시아 군인들보다 의료면에서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가자 어린이들 ‘성탄절 참변’...이스라엘 공격에 수십 명 사상

가자 보건당국 “최소 21명 사망”

성탄절을 앞두고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1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 방송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를 받는 가자지구 보건당국 발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에서 최소 21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

는 것이다. 가자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의 주택에 폭격이 떨어져 6명이 숨졌고, 역시 자발리아 난민촌에 위치한 알아우다 병원도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선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가 피란민 천막을 공격해 어린이 3명을 포함, 팔레스타인인 7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 중인 요르단강 서안 도시 톨캄 인근 난민촌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산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성명을 내고 24일 조직원 두 명이 톨캄에서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톨캄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인 결과 팔레스타인인 1명을 사살하고 수배 중이던 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다량의 무기도 압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



팔레스타인인들이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라 알 발라마 동쪽 살라 말 도로에서 이스라엘 공습 후 손상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방이 설치한 폭발장치가 터지면서 현장 지휘관이 가법지 않은 부상을 당해 후송됐다고 덧붙였다.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약 1200명의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았다.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한 이래 가자지구에서는 현재까지 4만5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숫자는 하마스 등에 속한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지만, 유엔은 사망자

의 절반 이상이 무고한 여성과 미성년자들이라고 말해 왔다.

한편, 25일 오전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해 격추했다면서, 낙하하는 파편에 다치는 사람이 나올 것을 우려해 공습 경보를 울렸다고 설명했다.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 지원을 명분 삼아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